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여성』지를 중심으로—

김 양 선*

1. 서론
2. 남성 / 지식인에 의해 호명된 여성
3. 제국주의 담론에 의해 호명된 여성
4. 지배 담론과 거리 취하기, 여성의 삶 진술하기
5. 결론

초록

본고는 1930년대 중·후반에 발간된 『여성』지를 대상으로 이 시기를 규정짓는 여성 담론과 그 담론에 의해 구성된 여성 주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담론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주체, 구성되는 주체 개념에 기반해 논의를 전개했다.

각 담론이 여성을 호명하는 방식과 그 효과는 크게 남성 / 지식인의 호명과 제국주의 담론의 호명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남성 / 지식인에 의해 여성은 근대적 모성성의 담지자, 근대와 전통의 조화를 지향하는 현대여성으로 호명되었다. 그렇지만 지식인 남성의 신여성 담론은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타자화시키고, 모성을 여성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속성으로 규정지음으로써 애초 의도했던 근대 비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39년 이후 여성들은 제국주의 식민 담론에 의해 호명된다. 총후(銃後)의 가정을 지키고 전시에비군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적 영역의 국가화'는 여성을 제국주의 전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제국주의 담론은 '내선일체'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되는데, 여기서 내지인과 조

* 한림대 교수

선인을 하나로 묶는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성'이나 '자매애'가 활용되기도 했다.

채만식의 『여인천가』는 제국주의 식민 담론을 서술자의 단성적인 목소리 안에 담았다. 내지(內地)와 외지(外地), 일본인과 조선인, 전방과 후방을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은 인물과 상황 설정, 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적 진술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주인공 진주의 일대기는 서술자의 수정과 침식, 편집을 거치면서 친일적인 관계와 아들을 전장에 보낸 위대한 모성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한편 이 잡지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어 당시 여성 문학의 면모를 가능케 한다. 각 작품들은 공사 영역에서 여성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리얼리즘적으로 그리거나(강경애, 박화성), 여성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백신애) 여성 문학이 현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하려 했음을 예증한다.

30년대 후반 여성 담론은 한편으로는 전시기와 같은 맥락에서 신여성을 비판하고 타자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의 범주를 국가 차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성을 식민화한다. 식민지 근대의 주변성이 여성의 주변성, 타자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이 남성중심적인 시각인지 아니면 근대성과 여성성의 관계를 해명하는 전략인지는 앞으로 좀더 고찰이 필요하다.

1. 서론

근대성이 고정된 실체나 특정한 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듯 보이는 근대성에 성별(gender)이 개입한다면 이 같은 특질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것인가. 근대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은 대개 여성이 역사나 사회변화와는 무관하며, 가정과 가족관계와 같은 사사로운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는 오래된 믿음에 기인한다.¹⁾ 그렇지만 근대성과 여성성은 남성의 근대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그것에 저항하면서 여성의 삶과 경험에 천착해 특정한 사회 역사적 시기와 상황에 반응해 왔다. 이와 같은 시각은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근대성의 본질에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공담론의 영역에 해당하는 잡지, 신문과 같은 매체는 상당히

1)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43.

일찍 근대적 제도의 일부로 정착된 것으로서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공적인 장으로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 근대적 삶의 준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공담론을 성별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것은 우리의 근대 기획에서 여성이 어떤 자리를 점했는지, 다시 말해 근대적 여성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여자계』(1917년 6월 창간)와 『신여자』(1920년 3월 창간)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간된 여성지들은 근대적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공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1930년대 중·후반에 발간된 『여성』²⁾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1910년대 후반, 1920년대에 발간된 『여자계』와 『신여자』의 발간 및 집필을 담당한 주체들은 여성이었다. 이들은 자유연애, 신정조론, 신여성론, 서구의 다양한 여성해방론과 같이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논제들을 쟁점화 하면서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대성과 여성성이 서로 충돌 또는 결합하면서 근대의 복합성을 체현해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전형기’라 불리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발간된 여성지들은 논쟁적 성격보다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종합교양지로서의 성격을 띤다.³⁾ 본고가 이 시기에 발간된 여성지를

2) 조선일보사에서 『조광』의 자매지로 발간된 『여성』은 1936년 4월 창간되어 1940년 12월 폐간되었다. 통권 58호, 4×6판, 매호 100페이지 내외로 출간되었다. 『여성』은 의식주를 비롯해 개인의 신변잡기를 다루는 요즈음 여성잡지의 전범을 보이지만 거기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전체 책의 체계를 보면 생활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당시 논점이 되는 사안을 다룬 좌담회를 비롯하여 시평, 월평, 논문 등의 전문적인 글들도 다수 실렸다. 또한 당시 문학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크게 축소되었던 상황에서 작가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필진들의 면면을 보면 이광수, 김남천, 최재서, 김문집, 백철, 김광섭, 함대훈, 박태원과 같은 남성 문사들과 근대적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전문적 여성과 남성이 주를 이루었다.

3) 김진송은 당시 여자 교육 인력이 늘어나고 여자들의 경제 능력이 증가되면서 이들을 독자 대상으로 한 잡지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본다. 김진송, 『서울에 만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 규율권력이 강화되었던 이 시기에 근대적 여성주체가 어떻게 변화한 사회지형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담론을 주도한 주체의 변화 양상⁴⁾, 여성에 관한 담론의 변화 양상을 통해 일상의 세세한 국면까지 스며들었던 식민지 권력의 실체를 엿볼 수 있고, 여성지는 그런 면모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가정하에서이다.

그렇다면 이 잡지의 담론이 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지속적인 면은 무엇이고, 달라진 면은 무엇인가.⁵⁾ 이 같은 문제 설정은 물론 30년대 후반이라는 특정 시기를 규정짓는 여성 담론과 그 담론에 의해 구성된 여성 주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적인 것, 근대적인 것, 이질적인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근대 초입의 역동적 분위기를 자아냈던 전시기와는 달리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새로움’이라든가 ‘근대적’인 것에 대한 평가와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재구성이 주체의 성찰적인 관점에서 기획되었는지는 따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근대성에 대한 성찰은 계몽이성을 전면적으로 회의하면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일본의 식민지 규율 아래 있던 우리의 경우 이 같은 반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에 대한 비판이 3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동아공영권에 포섭되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본고는 『여성』지를 대상으로 모성과 가정, 연애와 결혼, 신여성, 직업

스홀을 허하라』(현실문화사, 1998), p.209.

- 4) 동아일보에서 발간된 『신가정』과 조선일보에서 발간된 『여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여성지를 대변한다. 유력 일간지에서 발간한 만큼 단명할 위험은 덜했지만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에 기존의 지배 담론에 포섭될 가능성은 그만큼 컸다는 것이 본 논문의 가설이다.
- 5) 이 같은 질문은 한 시기의 지배적인 담론이 이전 시기 담론들과의 갈등과 협상, 중재를 거쳐 형성된다면 중첩되는 것과 차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의 문제 등 여성의 근대 경험과 관련해 여전히 흥미 있는 주제들이 1930년대 중·후반이라는 특정 시대와 상황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담론과 여성 주체와의 역동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주체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된다고 보고 담론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주체, 구성되는 주체 개념에 기반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⁶⁾ 이 경우 주체를 호명하고 구성하는 지배 담론의 성격과 그것이 주체 구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1930년대 중·후반에는 전(前)시기를 품미했던 계몽이나 계급 이념이 퇴조하면서, 그 자리를 일상에 대한 관심이나 제국주의 담론이 대신하게 된다. 여성 또한 이 담론들에게 호출되면서 새롭게 구성된다. 전근대/근대, 식민지/제국주의, 공/사 영역과 같은 이항대립적인 패러다임의 수정이나 강화는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1939년을 기점으로 판이하게 달라진 담론의 양상을 각 담론이 여성을 호명하는 방식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남성 / 지식인에 의해 호명된 여성

1) 수정된 모성성과 근대 비판의 한계

근대적 여성성은 그 태생부터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제가 일제하의 근대적 지식과 기이하게 결합하면서 만들어졌다. 여성의 교육은 자녀 양육이나 아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면서 근대적 모성성, 근대적 현모양처론이 등장했다.⁷⁾ 이 시기에 이르러 모성과 가정을

6) 알튀세에 따르면 개인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주체로 구성된다. 즉 이데올로기 안에서 작동하는 큰 주체(Subject)는 개인을 주체(subject)로 호명하며, 이에 답하고 따름으로써 개인은 주체화된다.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 1992), pp.49~56.

둘러싼 담론은 그 근대적 의미마저 탈색된 채 더욱 퇴행한 듯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 창간호부터 3호까지 연재된 이광수의 『여대학』은 제목부터가 『대학』이나 『소학』 같은 유교 경전을 옆두에 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 내용도 근대 초기에 자유연애를 주장했던 논자의 글답지 않게 봉건적이다. ‘결혼론’, ‘모성’, ‘모성으로서의 여자’ 총 세 편의 글은 공통적으로 가정을 여성 고유의 공간으로, 모성을 여성의 주된 역할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부부란 즉 가정이란 오직 사랑과 의무와 봉사로만 된 조직체”이고 “인류와 운명을 같이하는 제도”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언술은 가족 제도를 탈사회화, 비역사화하는 추상적인 진술이다. 또한 그는 “여자의 사명과 주체가 모성”에 있으며, 그것은 연애에 비할 바가 못된다고 역설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진출했던 여성을 가정으로 소환하고 있다. ‘모성으로서의 여자’에서는 “오늘날같이 살벌한 기운이 전 지구를 싸고 허위와 간교가 전인류를 물들일 때에 인류의 전도가 암담할 때에” 모성에에서 ‘밝은 빛’, 즉 구원의 가능성을 본다고 진술한다. 모성성을 근대 비판의 맥락에서 끌어들이는 듯한 이 같은 진술은 근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 전근대적인 것으로의 회귀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⁷⁾

여성성의 다양한 국면을 사상하고 ‘모성’만을 부각시키는 담론은 크게

7) 조은·윤택립,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8-여성』(학술진흥재단, 1995).

8) 펠스키에 따르면 여성과 전통, 전근대성을 관련짓는 비유, 모성적인 가정을 근대 세계의 혼돈과 불안정성에 대항하는 구원의 장소로 보는 시각은 근대의 자기구성 속에서 되풀이되는 주도적 주제였다. 여성은 근대의 중심에 존재하면서 무시간적이고 비사회적인 것의 상징, 소외되거나 파편화되지 않은 정체성의 표상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여성성의 영역을 향수어린 시각에서 형상화하는 경향은 반근대적인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난다. 리타 펠스키, 앞의 책, pp.69~90 참조.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자신이 습득한 근대적 지식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 같은 ‘근대적 모성성’은 전 시기 담론과 연장선상에 있는 담론이다. “가정 교육의 목적은 독립자주의 인간을 만드는 데 있”으며, “지나치거나 남용하는 모성에는 맹목적 모성애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는 주장을 피력한 전애록의 글이 여기에 해당된다.⁹⁾

또 하나는 앞서 살펴본 이광수와 허영순의 글처럼 모성애를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으로 규정하는 담론이다. 허영순은 ‘어머니된 여성’과 ‘사람으로서의 여성’을 구별한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이 되고자 했던 노라가 근대적인 의식을 지닌 선구자임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조선에는 적합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 같이 모순된 가치평가나 ‘어머니’와 ‘사람’을 구분짓는 태도는 근대적 모성성에 비해서도 퇴행한 것이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여성, 즉 인본주의적 주체에 대한 자각이 여성에게 긴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노라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여성을 욕망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터이지만 이와 같이 모성애를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일본의 총동원체제가 가시화되면서 제국주의의 ‘국가/민족의 어머니’ 담론으로 또 한 번 변형된다.

여성을 가정성(domesticity)의 범주에 한정하는 이 같은 전략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신여성에 대한 비판이나 연애와 결혼을 구별짓는 담론¹⁰⁾과도 관련이 있다. 자유연애라는 여파가 한바탕 몰려왔다 간 이후 신여성과의 연애결혼은 오히려 실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고, 구여성에 따라다녔던 부정적 이미지는 상쇄되거나 정반대로 되었다.¹¹⁾ 따라서

9) 전애록, 『모성애와 가정교육』, 『여성』 제2권 제2호(조선일보사, 1937. 2).

10) 연애=감정, 결혼=이치(理智), 연애=꿈, 결혼=현실과 같은 등식이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다.

11) 김경일,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사회와 역사』 54집(한국사회학회, 1998), p.35.

연애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나 선생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식의 절충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기실 변형된 권력의 통제 장치에 다름 아니다. 결혼은 의무의 체계, 인류의 문제라는 담론이 주를 이루면서 탈역사화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근대적 여성성과 관련된 이 시기 담론은 성찰적이기보다는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소환하거나, ‘참다운 의미의 새 생활’이라는 추상적인 윤리의 체계에 귀속시키는 퇴행적인 경로를 밟고 있다.

주지할 점은 모성성이나 결혼을 사회 및 역사에서 분리한 채 여성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속성으로 규정짓는 관점들이 대개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식인의 담론을 통해 유포되었다는 점이다. 여성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성에 기반해 입장을 개진하기보다는 남성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답습하였다.

2) 신여성¹²⁾에서 현대여성으로, 미완의 성찰성

“근대 조선여성의 역사는 신구여성이 충돌되어 온 역사다”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신구여성 사이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이들을 가르는 기준은 근대적인 교육의 수혜

12) 일반적으로 신여성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을 지칭한다. 그렇지만 교육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중간층 신여성’, ‘문자 해독 정도의 노동 신여성’에서부터 ‘해외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각계 각층의 지도적 신여성’, ‘자기 발전은 물론 사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에 매진하는 여성’에 이르기까지 자못 다양하다. 근자에는 신여성 개념 자체보다 신여성을 둘러싸고 형성된 담론의 맥락을 따져 그 유동적 성격에 주목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신여성’ 개념의 역사화, 맥락화를 통해 그 담론을 생산한 특수한 입장들, 다양한 힘의 세력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우리의 근대성 규명에 ‘신여성’ 담론이 유효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고의 문제 의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1999), pp.2~3.

여부에 있었다.¹³⁾ 하지만 신구여성의 차이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신여성은 남성의 시각에서 도덕적인 단죄의 대상으로 타자화되었다.

제2권 제2호(1937. 2)에 실린 ‘신여성 재음미 특집’은 신여성을 타자화하는 담론의 지속적인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담론의 생산자는 남성/지식인이다. 함대훈의 『조선신여성론』은 신여성의 물질적, 향락적 삶을 비판하면서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신여성의 진로를 “한개의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문화발전 단계에 있어서 여성이 가질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 같은 언술은 여성을 가정으로 소환하거나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인간 일반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현인규의 『현대문명과 여성』은 여성성과 근대성간의 관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공적 영역은 향락, 퇴폐의 장소, 사적 영역은 안락한 장소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등식을 되풀이한다. 그는 도시의 산업화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나 여성 해방을 이끈 동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역기능을 경계하고 있다. “도시는 여성을 모성을 기르는 곳이 아니고 창부로서 향락적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부지불식간에 되고 있다”는 언술은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타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가정의 의의’는 성찰성에 기초한 근대 비판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근대화로 인해 파괴된 ‘가정’을 복원하려는 변형된 향수 의지에 근접해 있다.

신여성의 역사를 ‘기미운동 이후’로 잡는 것이 정설로 확정된 가운데, 당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신여성에 대한 개념을 재조정하려는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근양은 “그가 교양이 있는 없든, 신식교육을 받았든 지금 새로운 시대에 태어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들은 옛날 여성에 대하여 신여성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정의한다.¹⁴⁾

13) 함대훈, 『조선 신여성론』, 『여성』 제2권 제2호(조선일보사, 1937. 2). ‘조선의 신 여성과 구여성의 구분은 무식한 것과 유식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 정근양, 『의학상으로 본 신여성』, 『여성』 제2권 제2호(조선일보사, 1937. 2).

신/구여성을 대립적 범주로 설정하는 것은 통상 행해졌던 터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그가 '교육의 유무'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동시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대성'을 강조할 경우 (신)여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직업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담론들이 많은 것도 이에 기인한다.¹⁵⁾

직업여성이란 말은 부인네들이 사무소나 백화점 같은데 진출하면서 생긴 말이며, 이것은 대규모의 상업이나 기업의 형태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과 동시기에 여자의 중등실업학교가 생겨났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일이다.¹⁶⁾

위의 글 「여성의 직업문제」에서 김남천은 부인의 직업의식이 '근대'의 정신이 들어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근대적 직업이 발생한 동기로 자본제 산업의 발달, 교육제도의 이입을 들고 있다. 그가 열거하는 직업들도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한다. 그는 한편으로는 직업 여성을 "육체노동을 바치면서도 극히 상대적으로나마 지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전문학교 교수, 각종의 교원, 보모, 의사, 기사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각 산업부문에 동원된 부인노동자는 자본주의 이입과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관한 언술이다. 그는 여급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근대적"이므로 기생과 창기와는 다르다고 본다. '근대적'인 요소를 직업을 구분하는 핵심적 범주로 보았던 것이다.

신여성 개념의 변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는 '신' 대신에 '현대'라는 접두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김광섭의 「현대여성의 고민」(제5권 제4호), 이원조의 「현대여성의 변민」(제5권 제11호), 윤규보의 「현대여성의 위치」

15) 제3권 제3호(1938. 3)의 이상호 「여성과 직업」, 제5권 제12호(1940. 12)의 김남천 「여성의 직업문제」는 직업여성의 문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피력한 글들이다.

16) 김남천, 「여성의 직업문제」, 『여성』 제5권 제12호(조선일보사, 1940. 12), p.26.

(제5권 제10호)는 신여성 대신 ‘현대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김광섭의 글은 여성들이 근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역사적으로 탐구하면서 이들의 반성을 요구한다. 그는 ‘노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으로 이어지는 여성해방론의 조류를 짚으면서 그것이 지닌 선진성이나 새로움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그는 “현대를 외형적으로만 생활에 요구하는” 신여성들의 부정적 징후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그는 조선의 신여성이 현대여성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뿌리 있는 교양을 기르고,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고민을 가져야” 하며, “세상에 대하여 현대적 의식을 가지고 현실도 보고, 남성도 보아야 한다”고 언술한다. 그는 「여성과 사치」(제5권 제9호)라는 다른 글에서도 조선 현대여성은 “시대와 현실과 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도시성과 여성성을 묶는 범주를 유행이나 사치, 허영으로 보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 주부에, 정신생활에 대한 교양에 한정한다. 공적 영역 = 물질/사적 영역 = 정신이라는 낯익은 이항대립항은 여성을 다시 집안으로 소환한다. ‘현대적 의식’이란 비판적 사고나 성찰성과 연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의 모든 문화와 전선은 지금 여성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그가 제시하는 ‘현대적 의식’은 일종의 협소한 시국관으로 여성을 전시체제에 동원코자 하는 포석으로 읽힐 여지가 많다.

‘현대여성’의 개념이나 역할과 관련된 담론들은 ‘신여성’에 비해 중립적이거나 전통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절충적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다. “현대여성이란 신여성이란 말의 조금 진화한 말인 동시에 구여성이란 말에 대립된 말”이라고 정의한 이원조의 글에서 알 수 있듯 추상적인 함의를 지니기도 한다. 이원조의 글에서는 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을 뿐더러, “결혼이란 사회적으로는 한 개의 풍속이고 개인적으로는 한 개의 운명”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신여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혐의마저 있다. 현대 여성의 역할을 전통과의 조화로 규

정하는 담론들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현대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구여성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 종래의 위치를 벗어나야 할 것은 물론이나 인테리 여성이 가족제도나 사회제도에 조화되는 위치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¹⁷⁾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우리 조선여성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의무의식을 수반하지 않은 한갓 권리의식이란 것이다. (…중략…) 교양인일수록 이기적 의식은 더할 뿐이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신여성과 구여성을 대비해보아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략…) 교양인은 항상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 좀더 본질적인 것, 즉 가능성 있는 현실을 뜻한다. (…중략…) 우리는 이 서구식 교양에서 그 몹을 이기주의적 의식을 모라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모라내는 데는 차라리 동양의 전통, 특히 우리 조선(祖先)의 교훈에 다시 도라와서 자성함이 필요할 것이다. 동양의 부덕이란 것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양의 부덕에서 굴욕과 억압을 몰아내야 한다. 양자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¹⁸⁾

두 사람의 글은 전통과 근대, 구여성과 신여성간의 절충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글 모두 '조화'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을 뿐더러 실제로는 현대/신여성이 가족으로 귀환해서 부덕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근대와 근대의 절합을 통해 근대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여성을 전통이나 가정의 패러다임에 복속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현대여성'은 1930년대 후반 대두된 근대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전통과 근대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성찰적 근대성에 입각해서 근대성과 여성성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지식인 주체들에

17) 윤규보, 「현대여성의 위치」, 『여성』 제5권 제10호(조선일보사, 1940. 10), p.29.

18) 김오성, 「여성의 교양문제」, 『여성』 제5권 제5호(조선일보사, 1940. 5), pp.18~19.

의해 호출된 ‘현대여성’이란 이름은 여성을 다시금 가정의 영역으로 소환해 들임으로써 이들을 다가올 전시 동원 체제하에서 국가와 전쟁 수행을 위한 이세의 양육이라는 모성애의 논리에 포섭한다.¹⁹⁾ 이 같은 사실은 ‘현대여성론’과 같은 호에 실린 일련의 담론들이 시국과 관련된 여성의 임무를 강조했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3. 제국주의 담론에 의해 호명된 여성

1) 사적 영역의 국가화와 식민화된 모성

전시체제와 관련해서 여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잡지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39년부터이다. 글의 제목부터 ‘전시’, ‘신동아 건설’, ‘신체제’, ‘내선일체’ 등과 같은 전시적 용어들이 주를 이룰 뿐 아니라, 권두언, 좌담, 시평, 부인지식, 부인시국뉴쓰 등 잡지의 세부적인 체제들까지도 일상적인 삶의 국면을 제국주의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국주의 담론에 참여한 필진들도 전문 경제학자에서부터 전문직 지식인 여성, 일반 가정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잡지의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권두언이나 칼럼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식인 여성이나 남편을 전장에 보낸 가정 부인들에 의해 씌어져 주목을 요한다.²⁰⁾ 담론의 주체가 여성일 경우, 더욱이 남편을 전장에 보낸 부인일 경

19) 김경일, 앞의 글, pp.35~36.

20) 「장기전과 부인의 임무」(1939. 1)

박정희(출정육군중위 이용준씨 부인), 「우리는 총대의 뒤를 맡은 자들」(1939.5).

서달순(육군소좌 부인), 「전장을 생각하는 마음」(1939. 6).

이옥경(제2방송부장 노창성씨 부인), 「두 숟가락 밥만」(1939. 12).

「송년사」(1939. 12).

「내선일체의 실천과 부인」(1940. 1)

우 감정적 유대가 잘 이루어져 독자로 하여금 동일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중 권두언이나 필자를 밝히지 않은²¹⁾ 시론적 성격의 글들은 대개 전장(戰場)과 총후(銃後)라는 두 공간을 설정해 놓고, 전장은 남성, 총후는 여성의 영역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여성의 영역인 가정은 정신적인 안식처 혹은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종래의 기능이 강조된다.

이 당시 특히 강조되었던 언설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자녀의 양육은 '황국신민의 육성',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아래 필자가 명확치 않은 「전시와 유아보건」(제5권 제5호, 1940. 5), 「銃後の 어린이와 가정의 책무」(제5권 제7호, 1940. 7)는 이 같은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글이다.

오늘날 이런 시국 아래서는 전선에서나 총후에서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청년과 장년의 체력이다. 더욱이 장기건설을 하려고 하는 때는 幼乳兒의 체력, 나아가서는 그 모태인 여자의 체력까지라도 국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전시와 유아보건」, p.50)

앞으로 일본을 떠받들고 나갈 2세국민인 소년에게 있어서는 이 신동아 건설의 성업의 의의를 더한층 명확히 인식하고 봉사할 각오를 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야 이 중대한 책무에 무거운 소년의 육성은 실로 총후국민에게 던진 어진 최고의 의무입니다. (「총후의 어린이와 가정의 책무」, p.48)

이숙중, 「내선일체와 부인」(1940. 4).

「국민정부와 여성의 힘」(1940. 5).

「시국과 가정교육」(1940. 8).

「전시국민과 사치」(1940. 9).

「시정 삼십주년과 여성」(1940. 10).

21) 필자를 밝히지 않은 글들은 대개 편집진에 의해 씌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글들은 제국주의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전시체제는 기존의 공사 영역의 분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齊家以後에 治國平天下>라는 말도 있지만 국가활동의 기초는 가정의 정비에 있는 것입니다.”²²⁾라는 언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기존의 유교 이데올로기는 근대적인 식민 담론의 틀 안에서 오히려 강화되었다. 사적 영역인 가정의 함의가 국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총후의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의 노력”은 남자들의 출정에 비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여성이 직접 공적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는 한’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 공/사 영역에 균등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듯한 언술은 기실 여성을 자녀 양육자, 가계 전담자로서 사적 영역에 고립시킴으로써 여성의 활동을 제국주의 전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신동아 건설의 숭고한 성업은 날로 수행되어 오거니와 여기에 중대한 책임을 앞으로 걸머지고 나아가 자녀들! 말하자면 차대의 황국신민의 육성이라는 것을 가정에 있어서 더욱이 힘써져야 할 것입니다. (…중략…) 국가활동의 기초는 가정의 정비에 있습니다. 만일 주부로서 그 가정을 잇고 바깥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운다고 하면 예서 더한 국민의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부인은 가정 밖에서의 활동은 자녀의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략)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수양과 부덕의 함양에 노력함과 같이 가정생활의 개선, 물체의 절약, 저축여행을 힘쓰는 일편, 자녀교육을 아울러 힘쓸 것입니다.²³⁾

결국 제국주의 담론에 의해 호출된 여성은 일상화된 전시체제의 일부로 재편된 사적 영역의 담당자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남자를 국외의 ‘전선’으로, 여성을 국내의 ‘후방’으로 나누는 전략은 지

22) 박영숙, 「이세국민의 전시교육」, 『여성』 제5권 제1호(조선일보사, 1940. 1), p.2.

23) 「시국과 가정교육」, 『여성』 제5권 제8호(조선일보사, 1940. 8), p.16.

금까지 집안/집밖, 사적/공적 영역으로 나뉜 성별 역할 분업을 국가 차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가가 '후방'에 있는 여성에게 기대한 것은 '병사를 출산'하고 기르는 역할과 '경제전의 전사'²⁴⁾로서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정의 국가화' 전략으로 전시 종주국인 일본에서 수행되었던 '여성의 국민화' 전략과 다를 바 없다.²⁵⁾ 다시 말해 여성/지식인들의 담론은 일본의 여성/지식인 혹은 여성운동가들의 담론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말하는 국가란 '내지'와 '조선'을 일치시키려는 제국주의 담론에서 말하는 국가로서, 민족의 범주는 사상되어 있다.

1940년에 들어와 이 같은 제국주의 담론은 '내선일체'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지인과 조선인을 하나로 묶는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성'이 활용된 것이다. 「내선일체의 실천과 부인」(제5권 제1호, 1940. 1)에서는 “조선의 부인문제도 내선일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오 또 그것만이 가장 바른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언술은 '내선일체'를 전경화함으로써 젠더와 민족의 문제를 무화시키는 듯한 담론적 효과를 자아낸다. 그렇지만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여성들간의 자매애적 연대이다.

녀자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유보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하여 잘 이해될 것이라고 압니다. (...중략...) 내선부인은

24) 이 시기에는 총후부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모든 것을 근검절약”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보국(保國)'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가정부인은 생활 개선의 담당자로서, “전시하의 물적곤란에 대하여 생활자속과 긴축의 정신”을 일상화해야 할 주체로서 자리매김되었다. 이 같은 담론의 특성은 가정 생활의 합리화나 생활 개선을 “국가사회에까지 미치는” 의무로 확대함으로써 사적 영역을 국가화한 데 있다. 이견혁의 「장기전과 가정경제」(제3권 제1호), 「전시하의 가정경제」(제3권 제8호)에서 볼 수 있듯 그 지침 또한 세부적인 면까지 이르러 당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5)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pp.63~68.

물론하고 사회사업에 나선 부인들은 대개가 다 인텔리층의 부인으로 깊은 의미에서 부인문제 가정문제를 연구해서 내선간의 생활양식과 문화의 교류는 이들의 힘으로 쌓여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여성운동이나 여성 문제 인식을 부정하면서 출발한 이 글에서 “천성적으로 아름다운 감정”이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여성성’을 의미한다. ‘여성성’의 자질 중 하나인 자매애는 “내선간의 교류”를 강조하는 제국주의 담론에 용이하게 변형된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언설은 젠더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젠더는 전쟁이라는 변동기 속에서 ‘탈자연화’되고, 가정의 국가화, 여성의 국민화 전략은 노골적으로 담론화된다.²⁶⁾

집나간 노라, 자기 욕망에 충실한 신여성에서 순응적인 가정의 관리자로의 놀라운 변신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 불과 1~2년 사이에 여성의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 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에 대한 두 이질적인 담론이 서로 모순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식인 남성의 신여성 담론이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타자화시켰듯이, 전 시체제 하의 여성들 또한 제국주의 (국가) 담론에 의해 타자화된다. 여성과 관련된 제국주의 담론은 제국주의/식민지, 근대/전근대, 남성/여성의 대립구도가 어떻게 서로 얽혀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식민지 근대성을 해명할 단서를 제공한다. 식민지 남성과 여성은 제국주의 담론에 의해 호출된 타자이면서도 제국주의 담론은 이들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양자간의 대화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전쟁에 동원된 남성을 위한 안식처인 가정을 지키고, 미래 전쟁에 동원될 자녀를 양육하는 기능이 부여된 여성은 남성의 제2의 성으로 다시 한 번 타자화되는 운명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26) 중립적인 듯한 국민국가가 여성이라는 범주를 활용하는 전략, 여성의 국민화라는 패러다임은 역설적으로 여성은 국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위의 책, pp.90~91.

2) 제국주의 모성의 형상화 : 채만식의 『여인전기(女人戰記)』

민족 담론이나 제국주의 식민 담론에서 여성은 젠더로서의 정체성(gendered identity)을 지니지 못한 채 민족이나 국가, 계급의 상징 내지 비유로 전용되었다.²⁷⁾ 이와 같은 상투적 이미지는 문학 담론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면서, 각 시기 지배담론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의의 내용만 다소 달라져 왔다.

여성성, 모성과 같이 주인공에게 부여된 젠더화된 역할은 민족이나 국가, 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 대주체의 담론에 종사하기 위한 것으로 변형되었다.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희생하고 계급 운동에 참여하는 강한 이념형의 여성,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아들을 민족/국가 같은 더 큰 아버지에게 헌납하는 모성적인 여성은 한편으로는 젠더적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역설적인 전략의 일차적 소환 대상이었다.

이 점은 삼십년대 후반에 발표된 이태준의 『성모』(『조선중앙일보』, 1935. 5. 26~1936. 1. 19)와 채만식의 『여인전기(女人戰記)』(『매일신보』, 1944. 10. 5~1945. 5. 17)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두 작품은 순차적인 시간 질서에 기반한 여성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는 점, 곤경에 빠졌던 신/구여성 어머니가 됨으로써 사적 갈등을 이겨내고 민족 혹은 식민지 국가의 아들을 훌륭히 키워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차이가 있다면 제국주의 식민 담론이 노골화되기 전에 발표된 이태준의 『성모(聖母)』가 결말에서 암시하듯 아들을 민족주의 운동의 대의에 복무케 하는 민족 담론의 산물인 반면, 채만식의 『여인전기』는 이미 제목에서 드러나듯 제국주의 식민 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모』의 경우 신여성에서 어머니로의 존재 전이 과정이 급작스럽고 여성의 역할

27) Meng Yue, "Female Images and National Myth," *Gender Politics in Modern China: Writing and Feminism*, edited by Tani E. Barlow, (Duke University Press, 1993), pp.122~131.

을 모성에만 국한시켜 신비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술자의 당위적 목소리가 텍스트를 지배하는 와중에도 신여성의 욕망이라든가 현실적인 어머니 노릇의 어려움과 같은 다른 목소리들이 틈새를 비집고 나온다. 모성을 체현하는 과정이나 육아 지식 또한 남성 작가의 글답지 않게 상세하게 서술되어 부분적인 뾰족성을 획득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요컨대 『성모』를 징후적으로 읽을 경우 ‘민족의 어머니’라는 텍스트의 지배 이데올로기 이면에 감춰진 모성의 현실적인 국면들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채만식의 『여인천기』는 제국주의 식민 담론으로 수렴되는 서술자의 단성적인 목소리로 일관한다. 내지(內地)와 외지(外地), 일본인과 조선인, 전방과 후방을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은 인물과 상황 설정, 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적 진술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는 『女子의 一生』(『조광』, 1943. 3~10, 원제 『어머니』)에서 제시된 주인공 진주의 이력과 집안 내력이 『여인천기』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데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여자의 일생』에서 진주의 외할아버지는 개화당과 동학혁명세력의 일원으로, 아버지 병수는 독립협회의 일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인천기』에서 아버지 임중위는 일로 전쟁과 일청전쟁에 참여한 일본군 장교로 신분이 바뀐다. 그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라도 마음의 나라는 일본”이라고 역설하는가 하면, 작품 후반부에서 밝혀지듯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여 유복자를 남기고 전사한다. 가족들 또한 일본 여성과의 결혼이나 성장하여 찾아온 일본인 동생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인다. 결말에서 내지 사람과 조선 여성 사이의 차이보다는 ‘핏줄’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것, 혁명가의 후예에서 친일적인 집안으로 변신하는 것 등은 수정과 개작의 의도가 일본과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내선일체에 있음을 예증한다.

『여자의 일생』에서 진주의 외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부계의 몰락, 아버지의 부재를 대신하는 모계가정의 구성은 주권의 상실에 일차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민족주의 담론의 자장권 안에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전통적인 구여성 진주의 어려운 시집살이와 그녀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신랑 준호를 모성적 배려로 보살피는 면모를 부각시킨다. 개인이나 가족의 틀 안에서 희생하고 인내하는 여성을 긍정하는 듯한 이 작품은 전통과 여성성, 모성을 동일시하고 거기서 부권과 민족의 상실을 대체할 정서적 위안을 찾는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앞에서 언급했던 향수(nostalgia) 의식의 변용이자 민족 담론의 지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에 『여인전기』에서 아들 철이를 전장에 내보낸 옥동태(『여자의 일생』의 진주)의 현재는 전장에서 아들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남편을 잃고 두 남매를 어렵게 키우기까지의 과정은 그녀의 과거 회상, 그것도 사건 중심의 요약 진술로 제시되고 있다. 전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한 편지가 주를 이루는 것은 후방과 전방을 하나로 묶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회상 부분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종주국 일본과 연루된 가계사는 상세하게 서술된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략하게 처리된다. 이 같은 서사적 특성은 서술자의 의도가 제국주의 식민 담론을 정당화하는 데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래 예문은 서술자의 설명적 진술과 교훈적인 목소리가 어떻게 소설의 완성도를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려는지 보여준다.

일본 여성은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에 바쳤으되 조금도 미련겨워하며 슬퍼하는 등 연약한 거동을 함이 없이 가장 늠름하기를 잊지 아니하는 천품이—정신이 잡히기에 이르렀다. (…중략…) 여러 백 년을 나라와 나라 위할 줄을 모르고 오직 자아분위, 가정분위, 오직 일가족속분위로만 살아온 조선 백성은 따라서 어머니들의 군국에 대한 정신적 준비랄 것이 막상 충분치가 못하였다. 빈약한 편이 많았다.

“나라는 개인보다 중하니라.”

“민족의 변영은 언제나 그 민족의 젊은이가 흘린 바 피와 정비례하느니라.”
조선 사람의 귀에 이런 외침이 울리기는 바로 최근 몇 해에 비롯된 것이었다.²⁸⁾

일본(내지)의 어머니와 조선의 어머니를 비교하고 내지인에게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 개인보다 나라를 중시하는 것이 제국주의 식민담론의 기본 전략이었음은 위에서 확인한 바 있다. 더군다나 문학외적 담론과 거의 구별이 가지 않는 예문의 편집자적 논평은 작품 서두에 배치되어 있어 텍스트의 주제와 향방을 미리 결정지어 버린다. 여성 주체의 삶과 경험은 서술자의 수정과 침삭, 편집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모성론'의 호명대상으로 타자화되는 것이다.

채만식은 『인형의 집을 나와서』, 『탁류』 등의 작품을 통해 수난받는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바 있다. 두 작품은 식민지 근대화의 급류 속에 휘말리거나 역류하는 여성을 통해 당대 여성의 삶을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성을 '민족'의 비유로 전용했다는 혐의가 없지 않지만 『여인전기』처럼 서술자의 이데올로기가 텍스트 전체를 통어하지는 않는다. 세 작품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 점, 젠더와 민족 담론 내지 제국주의 식민 담론 사이의 역학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텍스트 해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는 『여성』지 담론을 다루는 본고의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므로 추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4. 지배 담론과 거리 취하기, 여성의 삶 진술하기

남성중심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담론들과는 달리 『여성』지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은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편으로 상대적인 자율성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작품들이 지닌 문학사적 비중이나 작가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간단히 폄하할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이효석, 김유정, 채만식, 김남천, 계용목, 김동인, 한설야, 박태원, 이상 등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현덕, 안희남, 정인

28) 『채만식 전집 : 여자의 일생, 여인전기』(창작사, 1987), p.310.

택, 최명익과 같은 신세대 작가들도 필진으로 참여하였다.²⁹⁾ 더군다나 이 잡지는 순수문학 계열부터 구카프계열 작가들, 모더니즘 계열 작가들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다. 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이전 시기와는 달리 계급적 관점이 희박해진 것도 필자의 다양성에 한 몫 한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이 잡지는 여성 작가에 대한 개인적인 인물평이나 작품평을 비롯해 그들의 작품들을 다수 수록하여 당시 여성 문학의 면모를 가늠하는 소중한 자료 구실을 한다. 소설로는 박화성의 「호박」(1937. 9), 이선희의 「도장」(1937. 1), 강경애의 「어둠」(1937. 1~2), 「마약」(1937. 11), 백신애의 미발표 유고작 「아름다운 노을」(1939. 11~1940. 2), 장덕조의 「악마」(1938. 8~9), 「횡액」(1940. 7), 전숙희의 「시골로 가는 노파」(1939. 10), 그리고 시인으로 알려진 노천명의 단편소설 「사월이」(1937. 7), 「우장」(1940. 4) 등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작품은 비단 여성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반적인 퇴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발표되어 더욱 소중하다. 각 작품들은 공사 영역에서 여성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리얼리즘적으로 그리거나, 여성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여성 문학이 현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하려 했음을 예증한다.

가령 이선희의 「도장」은 친구여성의 갈등을 소재로 해서 구여성이 처

29) 열거한 작가들의 작품을 대략 알려진 것 중심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태원의 「수풍금」(1937. 11), 「이상의 비련」(1939. 5); 이상의 「봉별기」(1936. 1 2); 이효식의 「성탄」(1937. 4), 「향수」(1939. 9), 「거리의 목가」(1936. 10~1937. 2); 김유정의 「슬픈 이야기」(제1권 제9호, 1936. 12), 「어둠」(1937. 2); 채만식의 「정거장 근처」(1937. 4~10), 「젊은 날의 한 구절」(1940. 5~11); 이태준의 「코스모스 피는 정원」(1937. 4~7); 한설야의 「강아지」(1938. 9); 김동인의 「대당지 아주머니」(1938. 10); 계용묵의 「병풍에 그린 닭이」(1939. 1); 김남천의 「춤추는 남편」(1937. 10), 「세기의 花紋」(1938. 3~10); 정인택의 「못다핀 꽃」(1939. 5); 안희남의 「은실」(1939. 5), 「애인」(1939. 6~1940. 1); 현덕의 「жат을 까는 집」(1939. 4); 최명익의 「역설」(1938. 2).

한 딱한 상황을 ‘도장’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강경애의 「어둠」, 「마약」은 그의 대표작 『인간문제』 이후의 작가적 여정을 잘 보여준다. 「어둠」과 「마약」은 제목이 상징하듯 간도의 항일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를 배경으로 변화한 정세가 어떻게 「어머니 역할」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사랑과 같은 사적인 감정을 훼손하는지를 보여준다. 강경애는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불가능하고, 현실에 대한 단편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묘사만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를 여성의 경험에 기반해서 ‘여성의 시각’으로 그려냈던 것이다.³⁰⁾

반면 백신애의 「아름다운 노을」은 여성의 욕망을 여성 자신의 입으로 진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연상의 여성과 연하의 남성간의 사랑, 게다가 그 여성이 남편을 잃고 연인과 비슷한 연배의 아들을 두었다는 설정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 소설은 연령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이 상대를 욕망하는 과정을 그리는 데서도 남성과 여성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다. 이 같은 비대칭성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랑을 둘러싼 기존의 각본, 연장자인 남성 중심의 각본을 부정하는 전복적 의미를 지닌다. 모성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모습은 주체적이고도 실감 있게 다가온다. 더욱이 이 작품은 일인칭 화자의 고백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고백을 드러내고 진술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그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나’에게 말을 건네거나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되어 있다. 경험 자아 ‘나’와 서술 자아 ‘나’가 일치하지 않지만 둘 사이에 대화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을 뿐더러, 그것이 같은 여성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여운을 남긴다. 내성적 목소리와 타자와의 대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이 작품은 여성적 글쓰기가 어떻게 다성성을 지향함으로써 그 지평을 넓힐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³¹⁾

30) 김양선, 「젠더의 프리즘으로 형상화한 식민지 현실—강경애론」, 『실천문학』 (1999. 가을).

31) 이 작품이 지닌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아와 경험 자아 사이의 서술적 거리, 고백을 드러내는 방식 등 좀더 세밀한 텍스트 분석이

『여성』지의 문학 담론이 다른 글들과는 달리 지배 담론과 거리를 취하면서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작가들의 신체제 협력에 대한 강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또다른 이유로는 공적 담론과 일상 사이의 괴리를 들 수 있다. 공적 담론이 아무리 일상의 세세한 국면까지 통제한다 하더라도, 반복과 순환성을 그 특질로 하는 일상은 독자적인 동력으로 영위되는 면이 없지 않다. 현실 연관성을 중시하는 문학 담론은 그 일상의 엄숙함을 빌어 지배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여성의 정체성은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용되었고, 근대 성 담론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대 초기에 제국주의자들에게 타자화된 식민지 남성들의 대항담론은 여성을 전통, 전근대와 동일시했다. 여성은 이들에 의해 ‘민족의 어머니’로 타자화된 채 규정되었다.

한편 30년대 후반 공적 담론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근대 비판은 자성적인 목소리와 또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빚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일터와 가정을 획일적으로 전시체제화하기 위해 동원된 갖가지 담론들이 그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지배 담론의 일차적인 호명 대상이었다. 지배 담론은 한편으로는 전시기와 같은 맥락에서 신여성을 비판하고 타자화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과 가정성의 범주를 국가 차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성을 식민화한다.

이 시기 여성 관련 담론에서는 민족보다 국민국가나 아시아 공영권이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등장한다. 여기서도 여성은 서구 개인주의와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삶과 경험을 리얼하게 진술하는 강경애의 작품까지 고려할 때 이 시기 여성적 글쓰기의 다양한 지평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아쉽지만 추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구별되면서 동양의 일체감을 구현해주는 표지로 언설화된다. 여성은 제국주의의 오리엔탈리즘 담론에 의해 타자화된 것이다. 서구=근대, 비서구(동양)=반근대(전통)이라는 이항대립항의 후자에 여성성이 첨가되면서 여성 자신의 주체적 목소리는 가리워진다. 여기서 우리는 가부장제, 민족주의, 식민주의가 서로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장이 젠더이고 가정³²⁾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타자화를 식민지 타자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시각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것은 아닌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식민지 근대의 주변성이 여성의 주변성, 타자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은 앞으로 ‘근대적 여성성’, ‘근대성과 여성성의 배리’를 탐색할 연구자들이 해명해야 할 숙제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여성』, 조선일보사, 1936. 4~1940. 12.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사, 1998.

김경일,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사회와 역사』 54집, 한국사회학회, 1998.

김양선, 「젠더의 프리즘으로 형상화한 식민지 현실—강경애론」, 『실천문학』, 1999. 가을.

김은실, 「민족담론과 여성—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여성학논집』 제1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4.

조은·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8—여성』,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5.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학교원 사회학과, 1999.

32) 전은정, 앞의 글, p.37.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 「하위주체가 말할 수 있는가? 다원화주의의 문제들」,
『세계사상』 4호, 동문선, 1998.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Barlow, Tani E, *Gender Politics in Modern China : Writing & Feminism*, Duke
University Press, 1993.

Abstract

The Colonial Discourse and the Construction of Female Subject

Kim, Yang - Seon

This thesis intended to make clear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about women and female subject which was **constructed** by that discourse in the magazine *Woman*. The subject in this thesis means the subject who is constructed in the process of discourse **formation**.

There were the appellation of male/intellectuals and the appellation of imperial discourse in the way that called for female subject and that effect. The female subject was appellated as the people who possessed of modern **motherhood** and the 'modern woman' who **intended** to harmonize between modernity and tradition. However, 'New Woman' discourse by male intellectuals dealt with New Woman, desiring subject as the other. And they prescribed the motherhood as women's essential attribute. So they couldn't achieve the critical and reflexive viewpoint about the modern.

Also the female subject was appellated by the imperialist discourse after 1939. The women's role was emphasized, because they had to keep the

domesticity and brought up the children during the war. 'Nationalization of private sphere' was the policy to mobilize that women. And 'Femininity' or 'Sisterhood' was utilized in the strategy which united Japanese and Korean.

Woman's War Story written by Chae, Man-Sik narrated the imperialist ideology through the narrator's monopolistic voice. The intention to unite Japanese and Korean, the battle field and the rear revealed as various narrative technique like characterization and situation, or narrator's illustration and condensation.

In the other hand, we can know the various aspects of female literature through this magazine, because many literary works by women writers were published. The novels by Kang, Kyung-E, Park, Hwa-Sung described the women's hardships realistically, or The novels by Baek, Shin-E expressed woman's internal psychology in detail.

The discourse about woman in the latter part of 1930 colonized the female subject. In one hand, that discourse criticized the New Woman as the former period. In the other hand, it expanded the category about motherhood or femininity to the nation. The marginality of colonial modernity was revealed through the marginality of woman. There will be another study project whether this is the male-centered viewpoint or not.

